아름다운재단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사업보고서

2004-2021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사단법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아름다운재단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사업보고서

2004-2021

CONTENTS

아름다운재단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함께 만든 작은변화

1.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소개

- 기관 소개 08
- 사업 소개 10
- 지원 내용 10
- 장학금 지원분야 11
- 연간 사업 진행과정 11

2. 아름다운재단 기금소개

- 함께하는 사람들 12

3. 지원현황

- 연도별 지원인원 14
- 연도별 지원액 14
- 장학금 지원항목별 사용비율 15

작은변화 이야기

4. 장학생 인터뷰

- “장학금이 ‘그림에 집중해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18

- “걱정이 덜어지니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20

- “실패해도 다시 배우면 된다는 걸 배웠어요” 22

- “사람들을 웃게 하는 뷰티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24

5. 사업담당자 인터뷰

- “아이들을 믿어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26

  신은영 사회복지사 - 제천지역자활센터

  주서연 사회복지사 – 전주지역자활센터

6. 아름다운재단 배분위원 인터뷰

- 아름다운재단이 나섰다. 교육비 지원의 ‘기본’이 달라졌다 28

  임종화 배분위원

함께 만든 작은변화

함께 만든 작은변화

1.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소개

- 기관 소개
- 사업 소개
- 지원 내용
- 장학금 지원분야
- 연간 사업 진행과정

2. 아름다운재단 기금소개

- 함께하는 사람들

3. 지원현황

- 연도별 지원인원
- 연도별 지원액
- 장학금 지원항목별 사용비율

아름다운재단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아름다운재단은 사람이 만듭니다.
기부자, 지역활동가, 아름다운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재단입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재단은 기부자들의 염원을 담아
'작은변화'에 투자합니다.

건강, 교육, 노동, 문화, 사회참여, 안전, 주거, 환경의 8개 분야에서
단계별로 '작은변화'를 심고, 싹을 틔우고, 뿌리내리며,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꿈은 그리 대단하지도, 원대하지도 않습니다.
기적은 '작은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현장에 뿌리내린 단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성장할 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민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가 시작됩니다.

모두를 위한 시민의 재단
아름다운재단

전화 02-766-1004 홈페이지 www.beautifulfund.org

'가난을 넘어서는 협동사회경제 실현'

사단법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설립 목적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는 자율과 노동·나눔과 협동·소통과 연대의 이념과 정신을 기반으로,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인간의 가치가 우선하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율과 노동
- 자활사업은 주민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행동하는, 자율적인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건강한 노동을 실현해나갑니다.

나눔과 협동
- 자활사업은 나눔과 협동의 가치로 일과 삶을 나누고 협동하며, 나아가 사회적 나눔과 협동으로 이어지는 상생의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소통과 연대
- 자활사업은 소통과 연대의 가치로 주민, 종사자, 기관 그리고 조직과 조직이 함께 일하고, 지역사회로 연결되어 모두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2004년 ~ 2021년

아름다운재단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아름다운재단과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가 협력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사업 소개

세대를 잇는 빈곤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배움과 미래에 대한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지탱해줄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의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성적순으로 주는 '상금'이 아니라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에 힘을 실어줄 '희망'이고자 합니다.
아름다운재단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2004년 시작되어 2009년부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에 이어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와의 협력사업으로 전환 운영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21년까지 확대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부 정책에 따라 2021년도를 끝으로 아름다운재단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을 종료합니다.

사업 목적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차별받지 않도록 고등학교 재학에 요구되는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기회 격차 및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원 내용

사업명
아름다운재단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교육비 지원
1년에 200만원씩 총 600만원

지원 기간
고등학교 재학 중인 3년

장학생들은 선정 후 지역별 수행단체 사업 담당자와 함께 1년마다 장학금 활용계획에 대한 계획을 함께 작성하여 미래를 계획하고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나누며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지를 형성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장학금 지원분야

구분	항목	제한사항	비고
학교 교육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없음	전액 사용 가능
학교 생활비	급식비,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특별활동비, 교복비, 통학교통비, 교재비1, 졸업앨범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제반 비용	• 교복구입비 - 신입생의 경우 : 동복 30만원, 하복 15만 원 이하 - 그 외 : 필요한 품목만 구입 • 통학교통비 - 학교 납입 경우 : 전액 - 그 외 : 월 10만 원 이하 • 교재비1 - 학교 수업에 활용되는 보조 참고서	
기타 교육비	학원비, 교구비, 시험응시료, 교재비2 등	• 자격취득 기술교육 예체능 학원비(입시학원 제외) • 교구 비는 소모품 또는 50,000원 이하의 물품으로 연간 지원금의 10%(20만원) 이내 • 대학원서, 시험응시료 등 교육관련 제반 비용 • 교재비2 - 학교생활비의 교재비 항목을 제외한 참고서 등의 구입비용으로 월 10만원 이내 ※2개월 이상 일괄 구입 불가	연간 지원금의 50%(100만원) 이내에서 사용가능
기타	피복비 보건위생용품	• 안경, 가방, 신발로 한정(물품당 10만 원 이하) • 보건위생용품(생리대, 마스크, 손세정제 등의 위생관리 필요용품)	연간 지원금의 10%(20만원) 이내에서 사용가능

사업 진행 과정

심사·선발	
10월	- 신규장학생 선발 공지 - 서류접수
11월	- 서류심사 - 최종선정 심사회의
12월	- 최종선정 결과발표 - 추가선정기간 - 연속지원자등록 - 장학금 활용계획서 제출

지원	
1월	- 장학금 지원 - 장학증서 전달식 및 오리엔테이션
2월	- 수행기관 오리엔테이션
7월	- 상반기 보고서 제출
12월	- 연간 사업마감
3월 ~12월	- 현장인터뷰 및 수행기관 방문

결과보고	
1월	- 수행기관 결과보고서 제출
2월	- 회계감사진행
3월	- 결과보고서 제출

함께하는 사람들. 아름다운재단 기금을 소개합니다

김재중부메랑장학기금

'까칠한HEROSE누나들'은 그룹JYJ의 멤버 김재중 아티스트의 팬클럽입니다. 팬클럽 회원들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나눔을 통해 김재중과 함께 더욱 행복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제동환상의짝꿍기금

〈김제동환상의짝꿍기금〉은 방송인 김제동 님의 뜻을 담아 이 땅의 아동청소년들이 많이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동일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한 돌봄과 창의적 배움'을 지원합니다.

꿈꾸는대학로기금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교육 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 우리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꿈꾸는 대학로〉라는 사회저명인사들의 재능 강연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출연자의 자발적인 출연료 기부와 관객의 기부로 적립된 기금은 다양한 꿈을 가진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동우화인켐쉐어투게더

동우화인켐㈜은 정보전자소재 산업의 미래 글로버 리더로서 꾸준한 성장을 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임직원과 함께하는 일터캠페인을 통해 미래세대를 키우는 일에 동참해주셨습니다.

메가스터디기금

입시교육전문 기업인 메가스터디㈜는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회사수익의 일부를 사회공헌활동에 꾸준히 투자하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학업을 도왔습니다.

버버리기금

버버리재단은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그들이 속해있는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자선단체입니다. 버버리 직원과 고객의 기부금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유로자전거나라기금

유로자전거나라는 유럽의 인문학을 해설하는 지식가이드그룹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성인의 양심에 따른 사회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봉재박영임약속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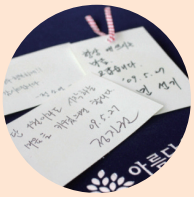
박영임님은 평생 생계가 되어 준 여관을 정리하며 마련한 1억 4천만원을 고등학생 학자금 및 대학 등록금으로 나누시겠다며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을 함께 담아 아름다운재단에 귀한 나눔을 전하셨습니다.

이알플러스 사랑플러스기금

㈜이알플러스는 이벤트계의 작은 혁명을 꿈꾸며 '창조적 소수'를 지향하는 BTL 대행사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날개를 선물하고자 사회공헌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재은임유경미래약속기금

임유경 님은 남편 이재은님의 환갑을 기념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출연한 기부금으로 가족기금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위해 나누며 사는 가족을 이루자는 마음을 담아 우리사회 미래세대와 소외된 이웃이 함께하는 삶을 꿈꿉니다.



정진권희망나눔기금

정진권님은 현실의 부족함이 아이들의 미래를 해치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가족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기금은 어려움 속에 홀로 선 아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꿈과 희망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징검다리기금

엔지니어링 기술 서비스 IT업체인 ㈜마이다스아이티는 매주 화요일 전 직원이 마라톤대회를 하여 본인이 뛴 거리만큼 회사에 1㎞당 천원을 적립한 기부금을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나누었습니다.

텐볼스토리수만휘기금

대학입시 정보 사이트 '텐볼스토리'와 '수만휘' 카페를 운영하는 ㈜텐볼스토리는 기업의 철학에 맞게 더 많은 학생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소득 가정 고등학생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토요타꿈더하기장학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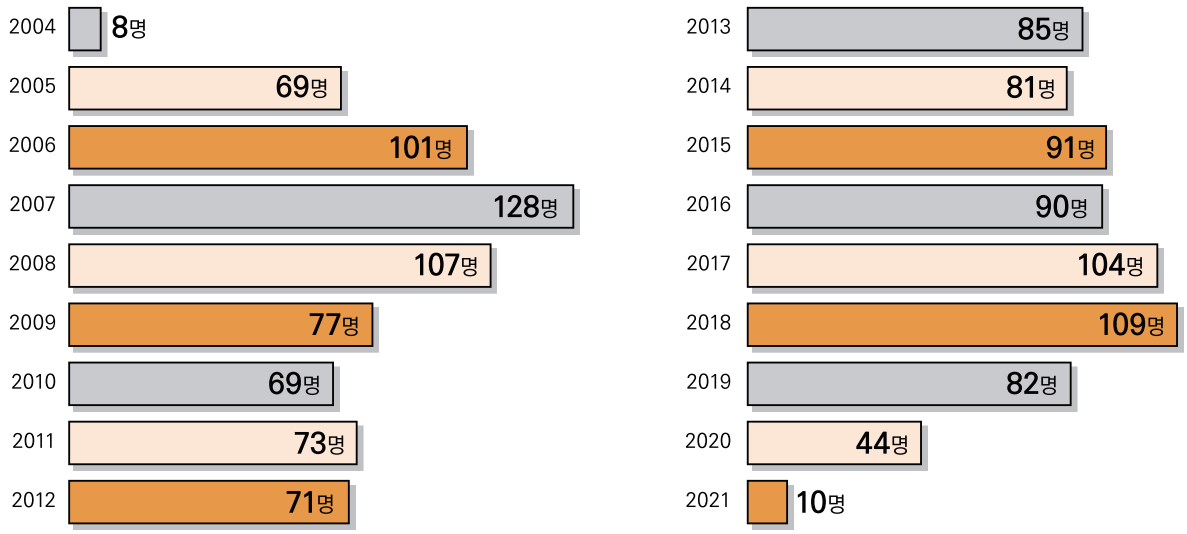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청소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커다란 장벽입니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등학생이 꿈을 잃지 않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작은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제장학기금

기금명 '하제'는 순 우리말로 '내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인 김영덕님은 모든 학생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교를 다니며 내일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인원 | 총 1,39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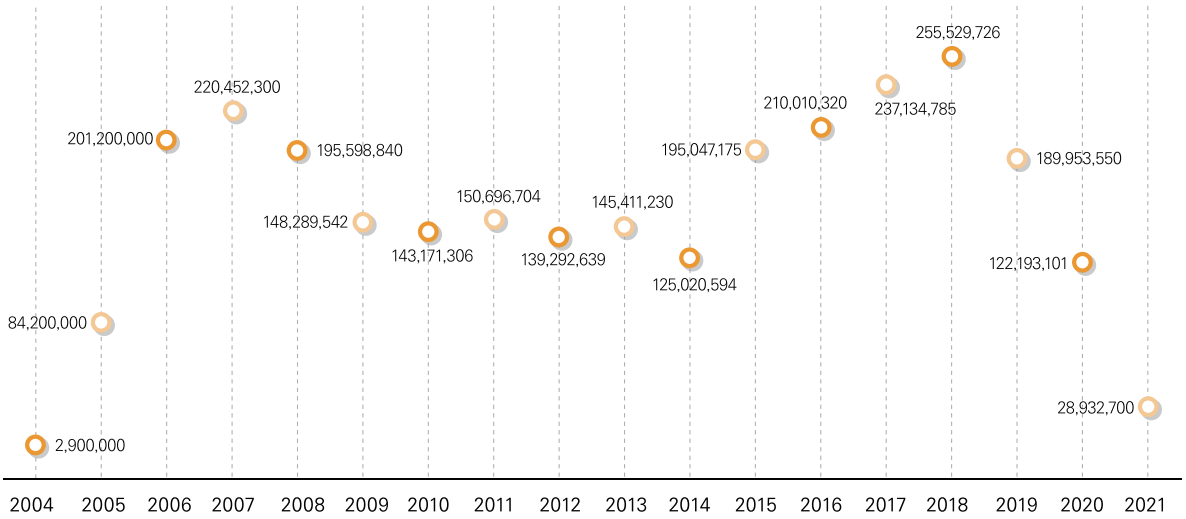
단위 : 명



* 총 3년 지원으로 신규 및 연속 장학생 인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별 정부정책 확대 시행에 따라 신규 장학생 선발은 2019년까지 진행 후 종료

연도별 지원액 | 총 2,795,034,512원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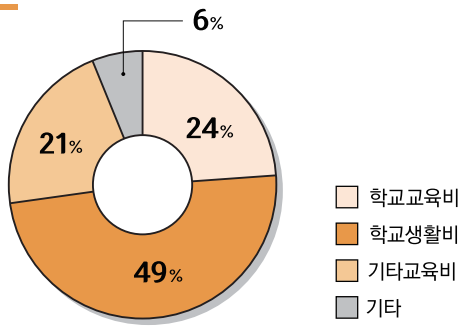


* 지원액은 장학금 및 사업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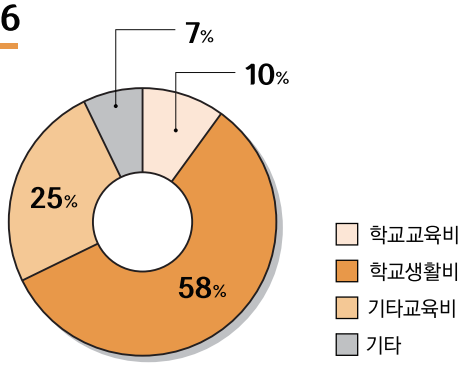
장학금 지원항목별 사용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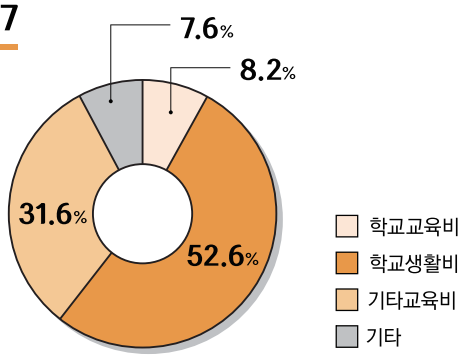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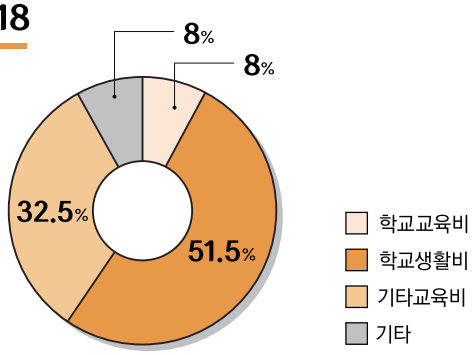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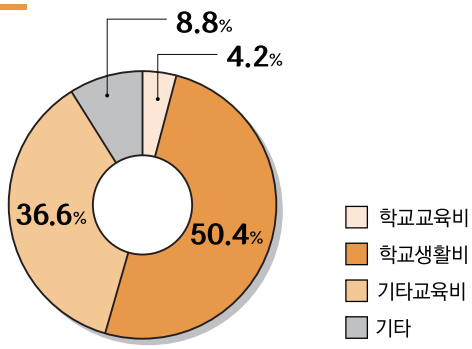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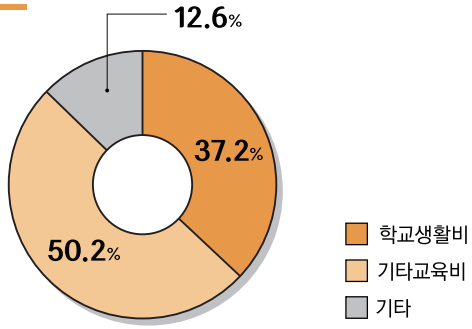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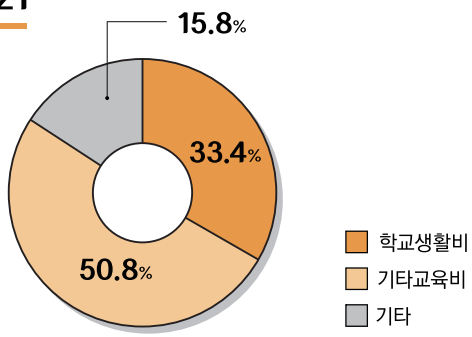
2019



2020



2021



작은변화 이야기

작은변화 이야기

4. 장학생 인터뷰

- “장학금이 ‘그림에 집중해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 “걱정이 덜어지니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 “실패해도 다시 배우면 된다는 걸 배웠어요”
- “사람들을 웃게 하는 뷰티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5. 사업담당자 인터뷰

- “아이들을 믿어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신은영 사회복지사 - 제천지역자활센터

  주서연 사회복지사 – 전주지역자활센터

6. 아름다운재단 배분위원 인터뷰

- 아름다운재단이 나섰다. 교육비 지원의 ‘기본’이 달라졌다

  임종화 배분위원

"장학금이 '그림에 집중해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 못 이룰뻔한 꿈을 잡아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놓칠 뻔했던 미술의 꿈을 잡다

이진영(가명) 씨는 대학 입학을 기다리며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느 예비 대학생처럼 운전면허도 따고, 틈틈이 자격증 준비도 한다. 종종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을 따라다니며 일도 배운다. 인테리어는 그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그는 하얀 도화지 같은 공간에 자신만의 색을 입히는 작업이 흥미롭다. 지난 3년간 입시 미술을 준비하며 미술의 기본기와 예술적 감각을 단단히 훈련했다. 모두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덕분이다.

"교육비 지원이 아니었다면 미술학원에 다닐 엄두를 못 냈을 거 같아요. 학원비뿐만 아니라 재료비와 실기 시험비, 교통비까지 부담이 많이 됐거든요. 지원을 받으며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주변 어른들로부터 "손재주가 좋다"는 소리를 들었던 그였다. 초등학교 때는 그림 대회에 나가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림을 진로로 삼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경제적 부담 때문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가을 그는 엄마에게 어렵게 입을 뗐다. "그림을 배우고 싶어요." 엄마는 더 신중히 고민해보고 이야기하자고 했다. 하지만 아무리 신중하게 생각해도 그림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엄마한테 다시 얘기했을 때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어요. 다행히 그때쯤 교육비 지원을 받았어요. 엄마도 저도 당연히 학원비와 재료비, 교통비로 써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만약 장학금이 없었다면 미술에 진짜 도전해보기는 어려웠을 거 같아요."

교육비 지원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미술학원에 다녔다. 유튜브를 보며 그림을 독학해왔던 그에게 미술학원은 신세계였다. 구도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어떤 색을 써야 할지 막막했던 그에게 구체적으로 조언해주는 학원 선생님이 있었다. 미술에 관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들도 처음 생겼다.

"제가 전자통신고등학교를 다녀서 주변에 예술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학원 다니고부터는 그리면서 막히거나 힘들 때 학원 친구들하고 얘기해요. 학원 선생님이 해주시는 충고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그려보고서야 '아,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처음 알았죠. 유튜브 보고 혼자 공부할 때와는 달랐어요."

‘마음껏’을 가능하게 했던 지원

그가 사는 동네에서 미술학원까지 왕복 두 시간. 꼬박 2년 2개월을 힘든 줄 모르고 다녔다.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고1 때는 주 3회, 2학년 때는 주 4회, 3학년 때는 주 6회로 학원 가는 일수가 늘어나며 필요한 교육비도 늘었다. 종종 실기시험비도 내야 했다. 그때마다 그의 곁에는 든든한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이 있었다. 장학금이 그에게 “그림에 집중해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인터뷰 내내 그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림을 다 그리고 완성할 때가 좋아요. 그러면 또 다른 그림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모르니까 궁금하고 호기심이 들어요. 그때가 가장 설레요.”

고1 가을에서야 미술학원에 들어간 그에게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미 기본기가 있는 친구들과 달리 그림을 처음 배웠던 그는 진도를 따라가기가 버거웠다. 그럴수록 그림에 집중했다. 고3 때는 매일 12시간을 그렸다. 말 그대로 그림에 올인한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고등학교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는 “더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말한다.

“후원자분들에게는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지원이 있어서 못 이룰 뻔한 꿈을 꿈꿀 수 있었어요. 지원을 못 받았다면 학원도 못 다니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했을 거 같아요.

스마트 전자과에 입학한 그는 앞으로 인테리어와 전자 기술을 결합한 일을 하고 싶다. 빈 캔버스 같은 공간을 자신만의 이미지로 채우는 상상만으로도 신이 난다. 무엇을 하든 앞으로도 미술의 끈을 놓고 싶지 않은 게 그의 마음이다. 이제 입시도 끝났으니 정해진 그림이 아니라 그리고 싶었던 그림을 더 마음껏 그리고 싶다. 이 ‘마음껏’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의 지지도 잊지 않고 싶다. 그는 언젠가 다시 자신이 누군가의 후원자가 될 날을 꿈꾼다.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복지관이나 아동센터에 간식이라도 살 수 있게 작은 후원을 하며 살고 싶어요.”

글. 우민정

"걱정이 덜어지니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 길을 닦는 도구를 손에 쥐여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9살, 태권도에 빠지다

이은지(가명) 씨가 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태권도장에 간 건, 아홉 살 때였다. 할아버지는 "세상이 흉흉하니 너의 몸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뻣뻣한 도복과 우렁찬 기합, 사방이 거울로 둘러싸인 도장.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사범님을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 그 느낌이 좋았다. 그 후로 11년 동안 태권도는 은지 씨에게 오랜 벗이었다.

어려움도 많았다. 첫 겨루기는 그에게 악몽과도 같다. 자신보다 몸집이 배는 큰 상대를 만나 호되게 당했기 때문이다. 그때 맞은 뒤로는 겨루기에 대한 두려움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난 11년 동안 꾸준히 태권도장에 나갔다.

"제 키가 150cm라 다른 친구들보다 작은 편이고, 유연성도 부족해서 배로 노력해야 했어요. 그런데도 태권도가 좋았어요. 태권도 할 때는 동작에만 집중하니까 다른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렇게 몰입되는 순간들이 좋더라고요."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았다. 어렸던 그가 자라는 속도에 맞춰 시시때때로 새 도복을 사야 했고, 승급할 때마다 허리띠도 사야 했다. 다달이 내야 하는 태권도 학원비도 부담이었다. 조부모와 사는 그에게 그 비용은 늘 마음 한편을 누르는 짐이었다.

"교육비 지원을 받기 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힘들게 일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두 분이 양말을 뒤집는 부업을 하시는데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일하셨거든요.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돕고 싶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일을 구하기 힘들었어요. 교육비 지원을 받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어 좋았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장학금으로 교복도 샀다. 태권도 학원비를 비롯해 학교에 다니는 교통비, 읽고 싶은 책 모두 장학금으로 해결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짐을 덜어드렸다는 기쁨도 컸지만, 무엇보다 좋아하는 태권도를 걱정 없이 할 수 있어 행복했다. 그는 인터뷰하며 '걱정 없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배움의 문턱 앞에서 수없이 망설였던 그였기에 '걱정 없이' 배우는 일이 얼마나 각별한지 잘 알았다.

길을 닦을 때마다 도구를 쥐여준 교육비 지원

요즘 그는 대학 입학을 기다리며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다. 틈틈이 책도 읽고, 조부모님의 부업도 돕는다. 코로나로 외출을 못 해 홈 트레이닝으로 운동량을 채우고 있다. 최근 모 대학 '운동재활학과'에 합격한 그는 자신이 누렸던 운동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고 싶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운동하면서 다리를 여러 번 다쳤어요. 다치고 나니 훈련할 때도 조심해야 하고, 실력도 뒤처질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은 나아가는데 나만 멈춰있다는 생각에 자존감 낮아졌어요. 첫 겨루기의 트라우마로 겨루기 실력도 좀처럼 늘지 않았고요. 나중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범 되려면 겨루기도 해야 하는데, 제게는 넘기 힘든 벽이었어요.”

부상과 이어진 실력 부진으로 태권도를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좌절할 때, 그를 격려해준 건 태권도장 관장님이었다. 교육비 지원 사업을 소개하기도 했던 관장님은 그에게 늘 길잡이가 되어준 고마운 분이다.

“운동은 계속하고 싶고, 태권도로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막막했어요. 제가 힘들어하니까 관장님은 대학에 가보면 어떻겠냐고 격려했어요. 처음에는 굳이 큰돈을 들여서 대학에 가야 할까 싶었어요. 우연히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운동재활학과의 커리큘럼을 봤는데 제가 배우고 싶은 것들만 쏙쏙 있었어요. 아, 여기에 가야겠다 싶었죠.”

그의 대학 합격 소식을 가장 기뻐한 건 조부모님이었다. 운동밖에 모르던 손녀가 알아서 자기 진로를 결정하고, 찾아가는 모습이 조부모님의 눈에는 대견하기만 했다. 그는 관장님의 격려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이 없었다면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다.

“교육비 지원은 제가 저의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길을 닦는 도구를 손에 쥐여줬어요. 맨손이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죠. 만약 교육비 지원이 없었다면 대학에 갈 생각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걱정이 덜어지니까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갓 입학을 앞둔 그지만, 벌써 졸업 이후에 하고 싶은 일을 다 생각해뒀다. 운동처방사가 되어 사람들에게 맞는 운동법을 알려주며 살고 싶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운동을 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몸에 맞는 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운동에 재미가 붙을 거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등록금과 취업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할 거”라며 크게 걱정하진 않는다. 이미 많은 산을 넘은 그이고, 그 길 위에서 얼마든지 손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 역시 “어려운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자신이 만든 길 위에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중이다.

글. 우민정

"실패해도 다시 배우면 된다는 걸 배웠어요"

-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제빵학원에 다니며 인생이 바꼈다

정해영(가명) 씨가 열네 살 때 처음 만든 빵은 식빵이다. 부드러운 식빵을 기대했지만, 속은 질퍽하고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우연히 진로체험 수업에서 제빵을 접한 이후로 해영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집에서 밀가루를 날리며 빵을 만들었다. 중학생인 그의 유일한 스승은 유튜브뿐이었다. 실패를 거듭하며 먹을 만한 빵을 만드는 과정은 지난했지만, 빵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매번 그를 흥분시켰다. 식빵, 머핀, 케이크, 타르트. 하나하나 완성할 때마다 도전할 수 있는 빵은 무궁무진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엄마한테 들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제빵학원이었다. 그전까지는 학원비가 부담되어 엄두를 못 냈다. 엄마는 예상했다는 듯이 흔쾌히 동의했다. 그 후로 3년 동안 해영 씨는 학교 일정이 아닌 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빵학원에 나갔다. 그는 교육비 지원이 자신의 "인생 자체를 바꿨다"고 말한다.

"중학교 때부터 제빵을 좋아했고, 혼자 집에서 빵을 만들었지만, 그냥 취미라고만 생각했어요. 좋아한다고 해서 다 직업이 되진 않잖아요. 돌아보면 그때는 자신이 없었던 거 같아요. 교육비 지원을 받고 학원에 다니면서야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제빵학원 등록은 그녀의 성격을 180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전까지는 학교에 가도 친구들과 인사만 하고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말실수를 해서 친구들한테 상처를 주면 어쩌나 조심스러워 한마디를 못 했다. 하지만 제빵학원에서는 모르는 걸 질문하지 않으면 배울 수 있는 것도 그만큼 줄었다. 빵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마음에 자연스레 질문하게 됐다.

"학원에서도 조용히 있으니까 배우는 것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제야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부족한 점을 드러내고 말해야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는데 그동안은 겁만 냈던 거 같아요. 빵을 만드는 일처럼 관계에서도 실패해도 다시 배워서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친구들한테 말할 때 전보다 용기를 덜 내도 돼요."

빵으로 소통하는 제빵사가 되고 싶어

친구들은 해영 씨가 빵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부터 달라진다"고 말한다. 빵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그가 대화를 주도하기도 한다. 그에게 빵은 즐거운 작업이자,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매개이다. 그는 앞으로도 빵을 매개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고 싶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 제게 이 교육비 지원이 큰 반환점이 되었어요. 제빵학원에 다니며 꿈을 키웠고, 제과제빵학과에 지원할 용기도 얻었어요. 제 인생 자체를 바꿔준 계기였다고 생각해요.”

제과제빵학과 입학을 앞둔 해영 씨는 요즘도 한창 집에서 빵을 만들고 있다. 발효기가 없어 천연효모를 활용하는데, 보이지 않는 미생물로 빵이 부푸는 과정이 신기하다. 최근에는 엄마를 위해 생일 케이크도 만들기도 했다. 케이크는 반죽이 어려워 까다로운 편인데 오랜 훈련 끝에 성공적으로 엄마를 위한 생크림 케이크를 완성했다. 그가 빵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선보이고 싶은 사람은 늘 엄마였다.

“엄마는 제게 친구같이 친근하면서도, 선택이 필요할 때는 현명하게 조언을 해줘요. 진로 문제로 제가 우왕좌왕할 때도 단호하게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고 중심을 잡아줬어요. 제빵을 선택했을 때도 실패해도 괜찮다고, 그냥 최대한으로 노력해보라고 이야기해줬어요.”

해영 씨는 얼마 전까지 오전 6시에 일어났다. 7시까지 동네 빵집으로 실습을 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고작 1주일이었지만, 제빵사란 직업이 얼마나 치열한지 온몸으로 느꼈다.

“새벽같이 나가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현실로 맞닥뜨리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구나. 그래야 사람들이 아침에 빵을 먹을 수 있구나. 남들보다 빨리 일어나 일을 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꿈은 자신만의 빵집을 차리는 것이다. 맛있는 빵을 만드는 건 물론이고, 빵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안내해주는 친절한 제빵사가 되고 싶다. 그에게 빵은 단순히 먹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그를 연결해주는 매개이기 때문이다.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받은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고도 싶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안정되게 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글. 우민정

"사람들을 웃게 하는 뷰티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 나를 찾게 해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으로 산 잡지로 뷰티 트랜드 익혀

이지은(가명) 씨는 어릴 때부터 외모를 꾸미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손재주와 눈썰미가 뛰어나서 한 번 본 메이크업이나 네일아트도 그대로 구현했다. 덕분에 졸업사진을 찍는 날이면 지은 씨의 손이 바빠졌다. 메이크업이나 헤어 스타일링이나 못하는 친구들을 도와줬기 때문이다.

"제가 손재주가 좋으니까 친구들도 저만 찾았어요. 엄마가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도 제가 화장을 해드려요. 일하느라 바빠서 엄마는 화장을 못 하시거든요. 얼마 전 네일아트도 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진작 해드릴 걸 하는 마음이 들었더라고요. 저는 제가 꾸미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을 꾸며줄 때 더 뿌듯해요."

그런 그가 뷰티디자인과에 들어간 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대학에 입학하면 메이크업부터 헤어스타일링, 네일아트까지 훈련해 뷰티 아티스트로 성장할 예정이다. 지은 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서점에 가서 잡지를 보며 다양한 스타일을 연구했다. 뷰티 분야는 특히나 트랜드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교육비 지원이 아니었다면 잡지 한 권을 사는 데도 수없이 망설였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잡지를 보며 새로운 스타일들을 배우거든요. 최근에는 네일아트 재료비도 지원받아 연습하고 있어요.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들을 살 수 있어 큰 도움이 됐어요."

뷰티디자인과를 선택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다. 어릴 적부터 호기심 많아 관심이 가는 분야가 많았기 때문이다. 뷰티 아티스트 외에 그가 가장 고심했던 직업은 간호사였다. 한동안은 간호사와 관련한 책을 탐독하기도 했다.

"불치병을 가진 아이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간호사분들의 헌신이 이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 되는지 처음 알았어요. 저도 친근한 간호사 되어서 환자들에게 물리적 치료뿐 아니라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사람들을 웃게 하는 뷰티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

뷰티 아티스트와 간호사.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직업이지만, 타인에게 도움과 기쁨을 준다는 면에서 상통했다. "남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가진 지은 씨가 끌릴 만한 직업들이었다. 우연히 시작했던 봉사활동을 고등학교 3년 내내 이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하다.

“주말마다 지역아동센터에 봉사 활동을 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이었는데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면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그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해졌어요.”

고등학교 내내 주말을 반납해야 했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영어 단어 외우기부터 수학 문제 풀이 같은 기초 학업뿐 아니라 그림책 만들기, 신문 기사 쓰기, 슬라임 놀이 같이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했다. 노력한 만큼 아이들이 웃는 얼굴을 보는 횟수도 늘었다. 대학에 가서도 하고 싶은 우선순위는 봉사 동아리에 가입하는 일이다. 그는 타인에게 기쁨을 줄 때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뷰티 아티스트가 되고자 하는 것도, 그 일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네일 아트는 자주 바꾸면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작은 변화이지만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기쁨과 만족감을 주죠.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기분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기쁠 때 저도 같이 기뻐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을 웃게 하는 뷰티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졸업 후는 소속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할 계획이다. 호기심이 많고 다양한 경험을 좋아하는 자신의 성향을 알기 때문이다. 소설부터 잡지,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독서 경험은 그가 자신에 대해 아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교육비 지원 덕분에 그는 맘 놓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사볼 수 있었다.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휘청이던 학창시절 지은 씨에게 힘이 된 건,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심이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중심 잡기 힘들 때 흔들려도 괜찮다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만 같았다. 지은 씨는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힘이 그 지지의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3년이 저에게는 부담도 많이 되고 힘든 시기였는데 교육비 지원을 받으며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지원이 없었다면 책도 안 사고 말지 하면서 넘어갔거나 배우고 싶은 것도 못 할 수 있었겠다 싶어요. 덕분에 제가 뭘 하고 싶고 원하는지 마음껏 찾아볼 수 있었어요. 교육비 지원이 내가 누구인지 나를 찾게 해준 것 같아요.”

글. 우민정

"아이들을 믿어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신은영 사회복지사(충북제천지역자활센터), 주서연 사회복지사(전주지역자활센터)

절벽으로 내몰리지 않게 도운 든든한 비빌 언덕

신은영 복지사(충북제천지역자활센터)는 지난 3년 동안 11명의 장학생을 만났다. 학생들이 필요한 곳에 장학금을 쓸 수 있도록 돕고, 진로나 일상적인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을 했다. 사소한 고민 하나에도 귀 기울이는 그의 모습에 학생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때론 부모님이나 친구에게는 하지 못했던 고민도 털어놓았다. 신은영 복지사는 그때마다 고등학생교육비 지원이 장학생들에게 꼭 맞는 옷이 되었던 배경에는 복지사들의 이런 숨은 노력이 있었다.

"장학금으로 책 한 권을 사더라도 같이 만나 서점에 가서 구입했어요. 만나서 밥 한 끼라도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점에 갔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하면 평소에는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속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주서연 복지사(전주지역자활센터) 역시 장학생들의 숨은 욕구를 발견하도록 돕는 일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학원 다니면서 힘든 점은 없는지, 더 필요한 건 없는지 만나면 늘 질문했어요. 집중하고 싶은 교과목이 뭔지도 묻고요. 그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필요한지 몰랐던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진로 문제로 불안해할 때마다 격려했던 것도 복지사들이었다. 작년은 코로나 사태로 학원에 가지 못하는 등 학업에 지장을 받아 힘들어하는 장학생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동안 열심히 해왔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거야"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시험에 떨어지거나 원했던 결과를 못 얻는 경우는 비일비재했다. 신은영 복지사는 그때마다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이 아이들의 비빌 언덕이 되었다고 말했다.

"미용하는 친구들을 보면 가발부터 약품, 도구까지 시험을 보기 위해 필요한 경비가 많아요.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이 있으니까 시험에 한 번 떨어지더라도 다음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게 도와줬어요."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은 장학생들이 절벽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도와준 든든한 비빌 언덕이었다. 신은영 복지사는 대학 원서비가 부족해 원하는 곳에 지원을 못 할 뻔했던 장학생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삶의 선택지가 넓어진다는게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는 그때 알았다.

“원서비가 없어서 대학을 두 곳에만 지원해야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갈까 봐 불안하고 속상한 마음에 저에게 연락을 줬는데, 원서비 지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뛸 듯이 기뻐했어요. 덕분에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죠.”

존재 자체로 응원받는다는 느낌

처음 만날 때만 해도 “나도 친구들처럼 학원에 다니고 싶어요”라고 했던 장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는 모습이 복지사들은 고맙기만 하다. 복지사들은 “학업 자체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 필요한 경비까지 지원해주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 주서연 복지사는 장학생이 주었던 작은 쪽지를 보며 이 일의 보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학생에게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어 감사했다’라고 적은 쪽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이었는데, 그 쪽지를 받고야 마음이 놓였어요.”

무엇보다 큰 보람을 느낄 때는 장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았을 때다. 한 장학생은 오랜 고민 끝에 동물과 관련한 학과를 선택했다. “부모님이 집을 비운 시간 동안 반려견에게 의지하며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돌아보기 힘들었을 시간을 자원 삼아 자신의 진로를 찾기까지 그 뒤에는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복지사들의 지지와 지원이 있었다.

신은영 복지사 역시 많은 장학생이 꿈을 찾아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 컸다고 말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준다는 사실이 주는 안정감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마음껏 탐색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갔다. 그래서 두 복지사에게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은 오랫동안 ‘신뢰’라는 단어로 기억될 것이다.

“무엇보다 성적순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덕분에 아이들이 존재 그 자체로 응원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신뢰가 자신감을 만들어주었고요.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은 말 그대로 아이들을 믿어주는 지원이었어요.”

글. 우민정

아름다운재단이 나섰다. 교육비 지원의 '기본'이 달라졌다

– 아름다운재단 임종화 배분위원

"아름다운재단의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90점이에요. 청소년의 교육기회를 공평하게 만든 거 자체가 의미가 있고,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지원에 대한 고민을 선도했고요. 다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10점은 유보했어요."

임종화 전 배분위원의 목소리에서는 뿌듯함과 아쉬움이 함께 묻어났다. 2011년 전문위원으로 인연을 맺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배분위원으로 참여했으니 그의 아름다운재단 활동 경력은 무려 8년. 그동안 꾸준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배분사업을 검토해서 논의하고 심사에 참여했다.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역시 임 전 배분위원이 함께 한 사업이다.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아름다운재단 창립 초기인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올해로 17년째. 이 전통있고 의미있는 사업이 올해까지만 운영된다. 무상교육이 점차 확대되어 사실상 전국의 고등학교가 등록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결정이다.

양적 성과를 넘어,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본질로

예나 지금이나 아동청소년 지원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고, 크고 작은 단체들이 이와 관련된 배분사업을 벌인다. 아름다운재단보다 훨씬 규모가 큰 재단들도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장학재단'을 표방하는 곳만 해도 수십 곳이 넘는다.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사업을 하는데, 아름다운재단의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임종화 전 배분위원은 "보통 이런 지원사업의 선발이나 지원과정은 양적인 것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름다운재단은 그렇지가 않았다"고 말했다.

지금은 사업의 방식이 달라졌지만, 과거 교육비 지원사업은 '가난하지만 성실한 청소년,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청소년'에게 집중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대학에 들어가 사회적 성공을 이룰 만한' 청소년만 선발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사업은 언뜻 보기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가난을 수치화하고 성적을 수치화해서 지원받을 청소년을 선정한다. 등록금만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사업을 관리하기도 쉽다. 빠르게 가시적 성과를 만들기에는 이보다 효과적인 방식이 없다. 그러나 한계는 명확하다.

사실 가난한데 꿈을 잃지 않고 살아나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아니, 애초에 잃어버릴 꿈조차 없는 청소년들도 너무나 많다. 임 전 배분위원은 "세상을 경험해봐야 뭐가 자신의 꿈인 지 알 수 있다. 꿈의 전제는 결국 경험인데, 가난할수록 그런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다"고 했다. 이렇게 꿈을 모색할 기회도, 도전하고 실패할 기회도 갖지 못한 청소년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사업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름다운재단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책변화에 맞춰 등록금 중심의 기본적인 지원에서 나아가 교육복지 차원으로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갔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년간 연간 2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에는 입학금, 수업료는 물론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수학여행비, 특별활동비, 통학교통비, 예체능학원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안경, 가방, 신발 등을 살 수 있는 비용도 포함되는데 최근에는 생리대, 마스크, 손세정제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보건위생용품으로도 사용범위를 확대하였다.

교육비는 한도 내에서 청소년이 직접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계획을 세우고 영수증을 챙기고 제출하는 모든 과정이 청소년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교육비의 지출 전 과정을 믿고 맡기는 것이다. 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꼼꼼한 모니터링도 함께 지원된다.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이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파악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새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는 역할을 한다.

폭넓고 지속적인 지원으로부터 정책이 변화될 때까지

이런 사업은 인력도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사업 담당자가 신경 쓸 일도 훨씬 많다. 게다가 이런 방식을 통한 변화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숫자로 환원되지 않는 질적 성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름다운재단은 번거롭고 복잡한 길을 택했다. 매년 청소년과 현장 수행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개선했다.

임종화 전 배분위원은 "정말 필요한 부분은 눈에 잘 안 보인다. 그래서 그런 방식의 지원은 잘 안 하려고들 한다"면서 "성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몇 명이 대학에 갔는지가 중요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런 생각을 넘어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이 정말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끊임없이 질문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름다운재단이, 그리고 임 전 배분위원이 그래왔던 것처럼.

임 전 배분위원은 "지원을 받는 청소년들이 사업을 통해 의미 있는 낭비도 해봐야 한다"고 했다. 직접 '낭비'를 경험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더 현명하게 삶을 계획할 수 있으니까. 또한 청소년의 삶이 바뀔 때까지 충분하고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가뭄이 든 논에 물 한 동이 부은 뒤에 '열심히 했으니 이제 됐다'고 흐뭇하게 돌아서면 무슨 의미냐"는 것이다.

아름다운재단의 도전은 점차 다른 단체에도 확산됐다. 이제는 다수의 재단들이 이러한 사업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임 배분위원은 "일부는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곳도 있지만,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하는 곳은 대부분 아름다운재단의 방식을 따라왔다"고 전했다. 아름다운재단은 청소년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청소년 지원사업의 흐름도 변화시킨 것이다.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아름다운재단의 또 다른 강점은 단지 청소년 한명 한명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메시지를 만든다는 것이다. 임 전 배분위원은 "아름다운재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단은 아니지만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아름다운재단이 진행한 지원이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결국 우리 사회가 감당할 일'이라고 사회에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다.

아름다운재단은 '급식비, 교복비, 등록금은 모든 청소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사회적 인식을 넓혔고, 실제로 그렇게 권리를 누렸을 때 청소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증명해보였다. 사회적 합의가 모아졌고 마침내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육이 도입됐다.

여전히 남아있는 교육기회 불평등... '기본'의 수준을 높이자

전국적으로 확대된 무상교육 제도에 대해서 임종화 전 배분위원은 "밥 먹이고 등록금 주는 것은 교육 기회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비로소 기본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정도를 갖고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아름다운재단에도 다음 단계의 사업을 당부했다.

임 전 배분위원은 "'기본'의 수준을 계속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교육 기회는 여전히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불평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는 현실을 목격했다. 노트북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의 격차, 혼자 쓰는 방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이 격차, 자기주도학습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의 격차.

그래서 임 전 배분위원은 "'과잉'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많이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그 '과잉'이 기본이 된다"고 했다. 가난한 애들이 무슨 여행이냐고, 문화생활이냐고, 비싼 밥과 옷이냐고 누군가는 비난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사치'라고. 그러나 그가 보기에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기본' 사항들이다.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임 전 배분위원은 "'너를 돕긴 하지만 나보다 잘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방식은 평등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더 많이 여행하고 체험하고 다양하게 배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경험들을 결핍 없이 채워서 청소년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청소년과 함께 하는 삶이 자신의 소명이라는 임종화 전 배분위원와의 인터뷰를 마치면서,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당부의 말을 들어보았다.

"너희가 받은 거는 다 선물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집이 여유 있는 아이들은 자신이 받은 게 선물이라는 걸 잘 몰라요. 반대로 어려운 아이들은 자기가 선물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신은 누구에게나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선물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받은 거죠. 그 선물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라고 주신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 선물을 잘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쓰길 바랍니다."

글. 박효원 ㅣ 사진. 이현경

작은변화를 함께 해 준 이들에게 전하는 편지

이런 사업으로
제 고등학교 생활을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제 꿈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도 남을 돕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업이
자주 진행되어 사회에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즐거웠고,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덕분에 지난 고등학교 생활 3년동안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학업에 더 충실했고
어려움 없이 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큰 도움을
주셨기에 한 걸음 더 잘 성장하는 학생이 될 수
있었으며 앞으로 도움받는 후배분들도 저희처럼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않고 잘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3년간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장학생들을 위해서 지금껏
장학금으로 지원과 많은 혜택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부터 전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장학금으로
조금은 부담이 되었던, 교육비와 학원비로 장학금으로
사용하면서 덕분에 부담을 조금을 덜 수 있었으며,
안정적으로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되어주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장학금을 받은 저도 앞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좋은 사람이 되어,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꿈이 있어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잡아주는 손이
되어 주었던 지원사업이 꾸준히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후에 저도 꼭 받음을 잊지 않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교 생활 동안 성적
향상을 위해 참고서를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담당 선생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시고,
자세한 설명과 도움을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아름다운재단과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학금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장학금은 필요한 곳에 잘쓰겠습니다ㅎㅎ
정말 감사합니다~!~!

장학금을 통해 제가 평소에 꼭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꿈을 위한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토요타를 성공하여 살 수 있을 만한 능력있고 멋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저를 믿고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초심 잃지 않고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3년간 잘부탁드려요
3년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취득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이룰게요 :)

저번에도, 이번에도 장학금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장학금으로 저의 꿈을 이루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토요타란
'새로운 희망', '좋은 경험'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해준 좋은 기회였다.

제 진로의 출발지가 되어주시고,
미래를 향한 발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름다운 재단 교육비 장학금을 받을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 꿈을 이루었을때 이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고 남에게 보답할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 좋은 분들의 귀한 인연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금을 통해 학교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통하여 만난 선생님과 그리고 형들이 토요타 장학금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토요타와 아름다운재단이 주신 뜻 깊은 기회덕분에 일본 유학의 꿈에 한발 더 다가갈수 있었습니다.
제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 건강하시고 안녕히계세요!

처음 선정 되었었던 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후에 처음 참석해서 실감 할 수 있었던거 같습니다. 이 장학금으로 자격증 취득을 도움 받으면 후에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이들어 장학금을 주신모든께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사업보고서

발 행 일 2021년 6월

발 행 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49 보은개발빌딩 701호

전 화 02-324-1892

홈페이지 http://www.jahwal.or.kr

디 자 인 레드칼라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 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지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사단법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